

# 친환경농업과 생태공동체운동<sup>1)</sup>

한 경 호(목사, 21세기농촌선교회장)

## 1. 들어가는 말

21세기 인류 최대의 화두(話頭)는 '생명'이라고 한다. 전 인류 및 생명계 전체의 생존과 존속에 대한 염려가 점증되고 있으며 동시에 생명의 문제가 개개인 자신의 삶의 문제로 성큼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생명' 논의가 주로 그 본질적인 성격이나 고귀함, 아름다움, 신비함 등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주로 식자층에 국한되었다면, 지난 세기 말부터의 '생명' 논의는 산업 혁명 이후 전세계적으로 추진되어온 공업화가 초래한 가공(可恐)할 생태계 파괴의 현실 앞에서, 생명 자체의 생존과 존속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하는, 즉 삶 자체의 문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대중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하겠다. 지난 200여 년 간에 걸쳐 진행되어오고 있는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류에게 육신의 편리함과 물질생활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

---

1) 이 글은 강원도 원주에서 발행하고 있는 『평론원주』 제8호(2002. 7. 1 발행)에 게재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필자 주).

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목숨이 담보로 잡혀 있으며 결국 그것은 온 인류의 멸망으로 직결되리라는 염려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생명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오늘의 도시문명은 인간 삶의 공동체성을 박탈하여 삶의 무의미성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농경시대에는 삶을 규제하는 도덕과 가치관이 뚜렷하였고 인간상호간의 신뢰와 애정이 살아 있었으나 도시화의 진전으로 전통적인 사회통제기능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었고 개인은 파편화, 원자화, 비인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켰고 물질적 수준의 향상은 가져왔으나 물질만능의 가치관, 생명경시, 경쟁과 상호불신의 점증 등으로 전통적 공동체성의 붕괴와 인간 본성의 상실이라는 값비싼 반대급부의 댓가를 치르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反)생명적이고 반(反)공동체적인 삶의 구조와 비인간화 현상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삶의 양식을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반생명적 관행농법을 생명농법으로 전환하여 도·농간의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도시적 삶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전의 '귀농촌'(歸農村)<sup>2)</sup>이 주로 경제적인 동기(IMF 사태 등)나 뜻 있는 소수 지사(志士)들의 농업 발전에 대한 의지의 표출이었다면 최근의 귀농촌 현상에는 도시문명에 대한 깊은 회의(懷疑)가 저변에 깔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전에는 농촌으로 오고 싶어도 자녀교육, 문화생활 등의 이유가 발목을 잡았

---

2) 귀농촌(歸農村)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귀농(歸農)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귀농촌은 삶의 터전을 농촌으로 옮겼다는 말이요 반드시 농사가 경제적 토대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반면에 귀농은 자신의 직업을 농업으로 바꾸었다는 뜻이다. 귀농촌한 사람의 직업은 농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귀농인은 직업이 농민이다.

었지만 이제는 “도시적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인식 하에 ‘일단’ 돌아가서 보자는 생각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어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보다 오히려 농촌 환경에서의 체험적인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되었고 문화생활에 대한 염려도 도·농 경계선의 붕괴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먹을거리의 생산지이며 농민은 그 생산자이다. 농촌은 인간 삶의 원초적인 문제 즉 노동을 통한 양식의 생산으로 삶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곳이다. 또한 농촌은 도시문명이 안고있는 한계를 극복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자연적인 생활환경, 공동체적인 삶의 구조, 노동을 통한 생산활동 등 도시적 삶과 대비되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도시는 사실 땅에게 부여된 생명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현장이다. 땅은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뒤덮이고 인간의 발에 여지없이 밟히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에 의해 이용되는 수단이요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도시적인 삶은 ‘고독한 군중’의 삶이다.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소외된 삶이다. 인간뿐 아니라 자연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삶이다. 땅과 인간을 생명으로 보지 못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이다.

인간 삶의 근본적 토대는 땅이며 존재양식은 관계적, 공동체적이다.4) 땅과 공동체는 인간의 본성에 맞닿아있다. 따라서 땅을 떠난

---

3) 필자가 살고 있는 귀래 인근에 그런 가정이 몇 있다. 부른면의 권혁준 씨 가정, 양성면의 유근세 씨 가정, 소태면의 김준우 씨 가정 등이다.

4)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창세기3:23). 인간의 존재양식이 공동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양식이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인 것에서 비롯된다. 또한 현대물리학에서도 물질의 궁극적 세계에 대한 탐구에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실체(building block)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interdependant relationship)만이 인식될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만물의 원초적 존재양식이 관계적이요 공동체적이라는 말

삶, 땅의 생명력을 상실한 도시, 고립되고 원자화된 비인간적인 삶의 양식은 더 이상 인간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없다. 농촌이 새로운 삶의 대안적인 현장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터이다.

## 2. 주제의 개념에 대하여

### 1) 친환경농업

최근 화학농약과 비료 중심의 관행농법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경주(傾注)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1970년대부터 자생적 농민 조직인 정농회(正農會)를 중심으로 유기농법이 꾸준히 실천되어 왔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 생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촌에서는 농법의 전환을 시도하였고, 그것은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조직화되면서 도시 농촌간의 연대구조를 형성하게되었다. 이렇듯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고 전개되어온 일이 1994년대에 와서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수용되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명칭이 붙게되었다.<sup>5)</sup> 지난 30여 년 간 식량증산과 농업발전을 위해 시행해온 화학농약과 비료 중심의 관행농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이란 용어는 나중에 정부가 지은 말이요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온 용어는 유기농업, 혹은 이런 류의 모든 농업을 통칭하는 말로 ‘생명농업’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필자는

---

이다.

- 5)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농업 발전의 중요한 출발은 1994년도의 ‘농어촌발전대책’ 부터이다. 이 대책은 환경농업의 전개를 위해 환경보전형농법의 개발과 보급,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지원, 환경마크제 실시, 전담 부서 설치, 환경보전형농업육성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한국농정의 10대 과제의 하나로 환경농업을 규정함으로써 이제까지 제도권 밖에서 진행되어 왔던 환경농업을 정책적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유정규 박사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농업 계획” 4쪽에서 인용)

친환경농업이라는 용어가 갖는, 본질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의미상의 한계와 사용 주체의 관변성을 생각하여 생명농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생태공동체<sup>6)</sup>

1980년대 후반부터 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1960년대 반문명적인 활동의 표현으로 수많은 공동체들이 생겨났다. 그 대부분이 농업과 관련되어 있고 농촌에 자리를 잡았으며 지금도 맥을 유지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공동체라는 말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주제가 갖고 있는 뜻은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말일 것이다. 생태계의 근본적인 구조 즉 순환, 환원, 공존의 가치를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사는 공동체를 말할 것이다.

사실 과거의 전통적인 농촌은 어떤 의미에서 생태공동체였다. 자연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자연을 거스를 만한 요인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생태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과거 농경시대 마을공동체로의 회귀인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가치와 형태를 추구하는 것인가? 과거의 농촌공동체가 자연 그 자체에 순응된 무의식적, 즉자적(卽自的)공동체였다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공동체는 과학기술문명에 의한 혜택과 문제를 몸으로 겪으면서 생각한, 의식적, 대자적(對自的)인 공동체이다. 산업사회의 경험이 전제되어 있는 탈산업사회의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 원리에 순응하는 삶의 양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을지 몰라도 시대

---

6) 생태마을과 생태공동체는 어떻게 다른가? 이 문제는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마을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농촌의 집단적 거주지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공동체는 뚜렷한 가치관과 목표 및 계획을 갖고 의도적으로 공통적인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집단적 거주지라는 의미가 강하다. 마을과 공동체를 이렇게 구분할 경우 이 글에서는 후자의 뜻으로 사용하려 한다.

적 상황이 다르고 그것을 추구해나가는 추진 주체들의 의식적이고도 공동체적인 노력이 꾸준히 경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3) 친환경농업과 생태공동체의 관계는?

그러면 친환경농업(이하 생명농업)과 생태공동체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몇 가지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명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기존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지역을 생태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충남 홍성 문당리의 생태마을과 전남 장성의 한 마음 공동체를 들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농민들이 주체이며 지도력이 농민에게 있으며 후자는 목회자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태마을연구회'의 자문활동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여러 마을들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sup>7)</sup>

둘째, 도시에서(외부에서) 귀농촌하여 생명농업을 실천하는 분들이 지도력을 갖고 중심이 되어 주위의 농민들과 함께 생명농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그 지역을 생태마을로 변화시켜나가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무주의 허병섭 목사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마을 밀알공동체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귀농촌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있다.

셋째, 마을 주민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농촌에 자리를 잡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경우이다. 사실 공동체운동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의 경우는 대체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 경

---

7) 생태마을연구회는 2000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3곳, 충북 1곳, 충남 1곳 전북 2곳 등 7개 마을에 공식적인 용역활동을 통해 혹은 단순한 자문을 통해 마을일에 관계하면서 생태마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우 종교적인 동기가 작용하는 수가 많으며 따라서 영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천 사례들이 있으나 아직 뚜렷한 모습으로 드러난 곳은 별로 없어 보인다. 경남 합천의 생명누리공동체가 있었으나 서투른 농사기술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경제적 지탱력의 부족, 지도자의 방향 선회 등의 이유로 흩어졌다.<sup>8)</sup>

넷째, 같은 지역에서 생명농법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도시 소비자들과 함께 농산물 및 인적 교류활동을 하면서 형성하는 도·농공동체의 경우도 들 수 있겠다. 이 활동이 지역에서 점차 뿌리를 내리고 생태공동체의 전망을 갖게되면 첫 번째의 단계로 발전되어 나간다. 원주생협, 경북 봉화의 새누리공동체, 경남 거제의 한울타리공동체, 변산의 한울공동체 등이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공동체운동은 추진 주체와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여러 요소들이 혼재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을 출신이든 도시에서 들어왔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반생명적인 오늘의 농법과 환경을 의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농법을 생명농법으로 전환하고, 파괴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삶의 양식(style of life)을 생태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운동이 주제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 3. 농사공동체의 여러 형태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서도 사용상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정작 공동체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수가 많다. 필자는 농사를 경제적 토대로 하는 공동체의 경우 토지와 노동의 결합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한다.

---

8) 예를 들면, 양봉의 경우, 100통 이상 있던 벌통이 서투른 양봉기술로 10여 통 밖에 안 남고 다 망가졌다는지.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생활비 준비가 안된 경우이다. 최근 지도력을 가졌던 정호진 목사는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관계로 현장을 떠나 있다.

첫째,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특정한 과제에 한해서 함께 연대하는 형태이다. 물론 이 경우도 농법은 생명농법을 전제로 한다. 생산 및 유통은 개인적으로, 생태적 생활과제는 공동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이다. 아마도 이 형태가 현실적으로는 보편적일 것이다.

둘째, 토지의 사적소유권은 인정하고 생산은 개인적으로, 유통은 공동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유통은 작목반이나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의 조직을 통해 공동적으로 한다. 협동적 노동, 즉 품앗이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전적인 공동생산은 아니다. 부분적인 협동의 단계이다. 이 형태가 농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진일보하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셋째, 토지의 사적소유권은 인정하고 생산, 유통, 분배까지 공동으로 하는 경우이다. 토지, 자본, 기술, 노동 등의 생산요소들을 개인별로 차등을 두어 나중에 분배에 반영한다. 이 경우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넷째, 토지의 공동적 소유 및 생산, 유통, 분배 등 전 과정을 공동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이다. 가장 수준 높고 이상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현실적 성공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가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왔다. 따라서 물질적 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소유에 대한 사적 집착이 대단히 강한 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보니 소유를 많이 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다. 또한 농민들의 땅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형태의 공동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현재 충북 증평의 증평영농조합법인(구, 증평 새마을협업농장)이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곳은 애초부터 토지가 개인소유가 아닌 상황 속에서 노동의 협동화를 기초로 하여 생



산과 유통, 그리고 분배를 공동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 형태의 공동체는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생산, 유통, 분배의 전 과정을 공동적으로 실천해야 가능할 것이다.

생명농법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 노동과 유통 과정의 협동화, 생활전반에 걸친 생태적 가치의 구현, 구성원들간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 생태공동체에게 부과된 과제이다. 경제적 생산토대의 안정성 확보가 제일차적 과제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생태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생태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sup>9)</sup>

생태공동체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고 추진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일도 많다. 더불어 하는 공동적인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 1) 선결 과제

###### ① 분명한 목표의 수립

생태공동체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며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으면 방향을 상실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경제적, 물질적인 곳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 정신적인 가치관

---

9) “생태적 공동체의 구성원리”(Eco-village Characteristics, 불교환경교육원 편역)는 생태마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인간적인 규모여야 한다 ② 다양한 생활요소가 완전히 갖추어진 주거지역야 한다 ③ 인간의 활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건강한 인간성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⑤ 무한한 미래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 『공동체를 찾아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171쪽.

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sup>10)</sup>

### ②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생태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비전과 꿈을 담은 계획이어야 한다. 충남 홍성 문당리의 생태마을 100년 계획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계획에는 경제적 토대의 구축 방안, 협동적 과제와 발굴, 새로운 문화창달의 의지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농촌의 현실은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대를 이을 후계자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부락 단위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범위를 넓히든지 젊은 인력의 주체적 역량이 있는 곳에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③ 생태적 가치관의 확립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공동체 형성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극복하여 생태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신념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흔들리면 공동체의 미래가 불안정하게 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신념 하나만이라도 확고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의식의 공유영역이 튼튼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

10)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새농촌건설운동'으로 상금(5억원)을 받은 마을들이 결국 그 상금 때문에 주민 상호간에 분열과 갈등을 겪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불행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주동자들이 처음부터 동기와 목표를 상금 타는 데에 두었기 때문이다. 보다 높은 가치관의 설정과 공유를 위한 사전작업 없이 진행되면 나중에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④ 개인 이기심의 극복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면서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세부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성격적으로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상호존중의 자세가 중요하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쁜 놈'이 되는 것이 우리 농촌의 일반적인 분위기여서 반대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할 때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성격의 상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깊이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욕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여 물질로 인한 마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손해보는 일에 익숙지 아니한 생활 습성이 문제의 시발이 될 때가 많다.

#### ⑤ 청빈한 생활을 지향해야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건강의 문제도 그렇다. 이제는 가난이 부끄러운 시대가 아니다. 자발적인 청빈과 검소한 생활이 생태적 삶에 매우 필요하다. 물자와 에너지의 낭비를 막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 농촌도 이제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있으며 먹는 문제는 더 이상 질곡이 아니다. 의식의 변화만 있으면 예전에 가난하게 살았을 때를 생각하여 오히려 검소한 생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⑥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확립

공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주체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특정인이나 소수 그룹에 의해 의사가 좌우되면 많은 구성원들을 소외시키게 되고 결국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

## 2) 추진 과정상의 과제

### ① 개인과 집단 간의 조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요구사이에는 긴장이 형성될 때가 많다. 생태공동체가 요구하는 것과 구성원 개인사이에는 언제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의 경우, 초창기의 멤버들은 공동체의 목표 앞에 언제나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미덕이요 또 가능했으나 2세들에 내려와서는 좀 더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여 제도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 ② 구성원간 갈등의 해결

구성원간의 갈등 해결이 공동체의 화합과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구성원 모두가 열려(open)있어야 한다.<sup>11)</sup> 이 갈등의 해결과정을 통하여 상호 인격적인 성숙을 어느 정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만드는 공동체이므로 인격의 성숙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의 건설이 대단히 중요하다. 때때로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여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과제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추진과정에서 함께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일의 완성도에 집착하게 된다. 그 결과 자칫하면 과제는 살고 사람사이의 관계는 파괴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일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

11) 1970년대에 문동환 목사, 이우정 선생 등이 중심이 된 공동체 '새벽의 집' 이 서울 수유리에 있었다. 별탈 없이 지냈는데 문제는 아이들한테서 발생하였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 것이다. 애들끼리의 갈등이었는데 한 쪽의 일방성이 계속되자 당하는 쪽 아이의 부모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진 것이었다. 결국 열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졌기에 해소는 되었으나 예기치 못했던 갈등이었다고 한다.

#### ④ 인간적 유대관계를 깊이 해야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좋다.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인에 대한 수용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동의 과제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개재되면 인간관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전에는 몰랐던 면들을 발견하게되어 서로 당황할 수도 있다. 이런 사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공동체운동은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5. 바람직한 생태공동체 상(像, image)

생태공동체 운동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과제이다. '생명' '공동체' 운동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할 새로운 삶의 양식인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것을 가능케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 하나의 사례를 가정하면서 생각해 보자

#### ① 공동체의 규모

농촌의 자연 부락이 그 기준이 되겠으나 가구수로 말하면 50-80 가구(200-300명) 정도가 적합할 것이다. 구성원들 상호간에 잘 알 수 있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다.<sup>12)</sup>

#### ② 경지 면적

원주의 경우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15ha<sup>13)</sup>로 조사되어 있다.

---

12) 최대 500명까지 본다. 이 규모를 넘어서면 관료화되거나 파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덴마크의 공동주거운동 그룹에 의하면 최적 규모는 30가구 정도(100명 내외)라고 한다.

13) 2002년 5월2일(목)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의 농업생태분과가 주최한 "원주지역의 농업현황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방향" 이란 주제하의 워크샵에서 "원주지역의 농업현황과 농업정책방향"을 발

이를 토대로 환산하면 60-100ha 정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구성원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주민 중에는 비농업 부문에 즉 공동체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③ 위 치

위치는 사실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모든 곳이 다 생태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치를 말하는 것은 개척 단계의 상황임을 감안해서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산과 물이 있고 마을이 예로부터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도시적 삶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곳이 좋다. 원주의 경우 치악산, 백운산, 미륵산 등의 산이 있고 섬강과 남한강이 흐르고 있다. 가능하면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면 더욱 좋다.

### ④ 구성원의 구조 및 마을의 내력

세대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춘 곳이 좋다. 나이든 세대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곳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노령화되어 50대 이상이 70-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분포도가 더 높은 곳이 좋다는 말이다. 또한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건강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다. 그렇지 못하면 의견 수렴이 어렵고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노인들 중 마을의 어른 역할을 해주는 분이 계시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마을에는 정자나무가 있고 풍물패의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 좋다. 정자나무는 마을의 일과 사건을 의논하고 판결했던 의사소통의 장소였으며 풍물은 주민들의 단합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제한 원주농업기술센터의 김범섭 소장의 발제문 2쪽에 의거.

### ⑤ 주민들의 참여의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의지이다. 객관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생명농업으로의 전환과 생태공동체로의 변화를 주민들이 수용하고 실천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없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지도력이 있는 주민이면 자신의 솔선을 통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어야하고 그것은 어려운 농가경제를 고려할 때 소득의 증대로 일단 나타나야 한다. 소득과 관계없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좋고 당연한 일일지라도 변화의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소득이 최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침체된 마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주기 위한 방편에 머물러야 한다. 물질적 욕구 충족에 계속 비중이 주어진다면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마찰과 갈등이 쉽게 일어나고 구성원간의 인간적인 신뢰와 애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⑥ 교 육

교육은 생태공동체 운동을 지속, 고양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교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과정을 통하여 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생각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 생태적 가치의 실현 사이의 조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자체 내에서 준비할 수도 있고 외부의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또한 모범적인 현장을 방문하여 견학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 교육을 통하여 비전을 심어주고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사랑방 좌담회의 형식이 바람직하다.

### ⑦ 공동실천과제의 설정

실천과제는 현장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명농업의 실천을 위한 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모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뜻 있는 자원자가 시작하는 것이 좋다.

둘째, 생명농산물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소비자와의 직거래, 생협 등 생명운동 단체를 통한 출하,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등이다.

셋째, 오염된 농업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이다. 폐비닐, 빈 농약병, 음료수병, 술병, 비닐봉지 등 농지근처에 널려져있는 폐기물들을 치우고 평소에 깨끗이 하도록 한다.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며 유해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마을의 빈 공간이 있으면 조경에 힘을 기울여 아름답게 조성한다.

다섯째, 마을이 갖고 있는 자연적 조건(강, 산, 계곡 등), 역사적 조건(문화유적지)들을 활용하여 도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여섯째, 잊혀져버린 농촌문화를 되살리는 일을 한다. 가능하면 마을에서 전승되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오늘의 형편에 맞게 살려내는 것이 좋다. 특히 농사절기 중 단오, 한가위, 설날, 정월대보름 등의 큰 명절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 ⑧ 공동사업의 모색

생명농업의 실천과 함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농사이외에도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농산물가공사업, 농사부산물을 이용한 가내수공업, 특산품의 개발 등 지역 형편에 맞는 사업을 시행한다.

### ⑨ 생태건축으로의 전환

10년 전부터 농가주택 개량사업이 추진되어 옛 농가를 헐고 새로



건축을 하는 집이 많아졌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벽돌 조적조 슬라브 건축이다. 천편일률적일 뿐만 아니라 반(反)생태적이다. 시멘트 건축은 생태적으로 문제가 많은 방식이다. 건축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건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⑩ 재 정

생명농업으로 전환하고 생태공동체를 조성해나가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의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마을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주민 전체가 찬성하면 마을에 비축되어 있는 자금(대동계, 부녀회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을 쓸 수 없거나 부족하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일정한 회비를 거두는 방안, 공동유통을 하면 유통 수수료를 일정액 내는 방안, 공동사업수익으로 마련하는 방안, 외부의 후원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 ⑪ 축제의 생활화

생태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적 활동을 함께 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생각, 감정 등을 건강하게 나누고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의 애환을 풀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축제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좋다.

##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농업과 생태공동체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무슨 거창하고 관념적이고 당위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라는 입장에서 접근해 보았다. 오늘 농촌은 날로 피폐화되고 있다. 반면, 상공업 중심의 도시문명에 대한 회의(懷疑)와 저항감이 날로 증가하여 귀농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촌은 우리

에게 어떤 곳이며 또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경제적 관점 중심으로 보면 '농촌'은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경제적 입장을 포함하여 이제 는 문화적 진보의 관점에 서서 농촌을 바라보아야 한다. 생명농업과 생태공동체가 바로 그런 입장에서의 접근이다. 반생명적인 도시중심의 공업문명과 그에 기반한 삶의 양식은 농민들에게는 삶의 황폐화를, 도시인들에게는 삶의 무의미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너져가는 농촌을 살리고 문명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농촌 현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내일을 열어가는 새로운 대안적 삶의 양식을 농촌생태공동체의 건설을 통하여 이루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원주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현대 한국사회 생명운동의 모태지요 동시에 활발한 실현지이다. 이제 생명운동은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 경제 중심의 접근, 기구 중심의 활동, 활동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 전체가 자신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적 가치를 구현해나가는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것은 생활단위에서 출발한다. 농촌의 생활 단위인 마을에서부터 이 생명공동체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